

# 신완식 목사의 축사·권면·격려사에 대한 단상

-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책임 -

목사 안수식을 거행할 때 있었던 일이다. 안수기도문을 낭독하던 목사님의 목이 메면서 괴성이 흘러나와 기도말미가 잘못되는 돌발 사고가 났다. 가래가 성대를 막았는가? 순간 단상을 바라보니 당사자가 옆에 있는 사람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치면서 왜 웃기느냐고 몸짓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가래가 성대를 막은 것이 아니었다. 웃음을 애써 참으며 기도하다가 터져 나온 괴성이었다.

아! 이런 자리에서 장난을 치다니.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목사안수를 받는 당사자가 걱정되었다. 오죽이나 황당했을까? 아니 일평생 상처로 남지는 않을까?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이 생생하다.

임직식은 교회로서도 큰 행사지만 직분을 받는 사람에게는 일생에 한번뿐인 중대한 행사다. 순서를 맡은 사람에게 행사를 빛내야 할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 1. 왜 설교처럼 들리는가?

신학대학 교수가 설교를 하면 강의가 되고, 목사가 강의를 하면 설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임직식을 할 때도 축사, 권면, 격려사가 다 설교처럼 들려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다. 순서를 맡은 사람은 축사, 권면, 격려사가 설교같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축사, 권면, 격려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 축사(祝辭)는 축하의 뜻을 나타내는 글이나 말,
- 권면(勸勉)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말,
- 격려사(激勵辭)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주기 위하여 하는 말이라고 한다.

임직식의 축사, 권면, 격려사는 사전적 의미에 맞도록 하되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싶다. 특히 권면은 성경을 한 두절 읽고 그 근거로 권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다.

## 2. 좋은 임직식사의 예

※임직식사: 편의상 임직식의 축사, 권면, 격려사를 통칭하여 임직식사로 표기하기로 한다.

- ① 원고를 준비하여 임직식사를 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② 자존감을 세워주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축하, 격려, 권면을 하면 은혜롭다.
- ③ 독특하고 적절한 유머와 재치가 있는 임직식사는 청중을 즐겁게 하고 기쁨을 준

다.

- ④ 임직식을 하는 교회의 미담이나 특이한 점을 깊이 관찰하여 소개하고 적절한 말로 축하, 권면하면 성의가 엿보여서 좋다.
- ⑤ 작고 어려운 교회에 체면을 세워주고 가치를 부여하여 격려하는 임직식사는 은혜롭다.
- ⑥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여 정직하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임직식사가 좋다.
- ⑦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임직식사가 좋다.

### 3. 좋지 않은 임직식사의 예

- ①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 빈축을 사는 경우 행사전체를 망치는 일이 된다.
- ② 앞뒤가 뻘하거나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내용의 임직식사는 회중을 지루하게 한다.
- ③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면 축제분위기에 손상을 준다.
- ④ 명령조의 말, 훈계조의 말과 같이 깔보는 말을 하면 청중이 불쾌감을 갖게 된다.
- ⑤ 아첨하는 말이나 지나친 찬사는 좋지 않다.
- ⑥ 은근히 자기자랑이나 자기의 경험담을 늘어놓는 임직식사는 좋지 않다.
- ⑦ 개인적인 친분, 그 교회와의 인연 등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다가 논지를 잃어버리고 허둥대는 임직식사는 좋지 않다.
- ⑧ 축사인지 권면인지 격려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임직식사는 좋지 않다.
- ⑨ 준비 없이 관록으로 하는 즉흥적인 임직식사는 좋지 않다.

### 4. 임직식사의 준비와 작성에 대한 제언(提言)

임직식사를 의뢰 받게 되면 우선 임직식을 하는 교회와 임직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야한다. 또 임직식사를 맡은 사람이 몇 명인지, 자기가 맡은 순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임직식사를 구상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임직식사는 3분정도(A4용지 1면) 분량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시간을 길게 끌면 실패작이다. 보다 나은 임직식사를 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기획, 포인트, 디자인, 정제되고 간결한 언어가 고려되어야한다.

임직식사의 디자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한 가지를 소개한다.

- 1.들어가는 말(예화, 또는 감동적인 이야기: 전체 내용의50-70%)
- 2.연결하는 말(10-20%)
- 3.권면이나 격려나 축하하는 말(20-30%)

# 신완식 목사의 축사·권면·격려사에 대한 단상

-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

## 5. 격려사(激勵辭)의 실제.

A교회는 개척한지 몇 년 안 되는 교회다.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예배당을 이전, 새 단장하고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필자는 여기서 격려사를 맡았다.

### A교회 이전 감사예배 격려사

널리 알려진 예화입니다.

초라한 행색의 흑인 한사람이 낯선 도시로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일거리를 찾아보려고 길을 나섰는데 은은한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오늘이 주일이구나.」

그는 종소리에 이끌려 어느 큰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입구에는 안내위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며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려니까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흑인은 여기 들어오면 안돼요.」

그 교회는 인종차별이 심한 백인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이 사람은 「백인들 보러왔나 예배하러 왔지」하고 중얼거리며 예배당 밖에 있는 돌계단 밑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송을 하면 찬송을 따라 부르고, 기도하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 왔는지 늙은 흑인 한사람이 자기 옆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장은 누구신가요?」

물어도 대답이 없는 그는 매우 슬퍼보였습니다.

예배가 끝날 즈음에 노인이 먼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저 백인교회에서 쫓겨났단다. 내 이름은 예수다.」

이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부재의 교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예화는 미국교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작금에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우리의 건축문화는 현란할 정도로 대형화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웬만큼 잘해놓아도 좋아 보이지 않는 눈높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면을 리모델링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는 걸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A교회는 예배처소를 이전하고 이렇게 아담하게 새 단장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상한영혼이 치유되는 교회,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싸우지 않고 화목한 교회, 겉보다 속이 알찬교회, 사도행전 적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으로부터 전폭적인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크기에 관계없이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격려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완식 목사의 축사·권면·격려사에 대한 단상

- 목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

## 6. 축사(祝辭)의 실제.

B교회는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다. 개척교회에 부임한 K목사가 10여 년간 목회를 하며 5년 전 7억 원을 들여서 아파트단지 앞 8차로 변에 땅을 사서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목사가 가장 많은 물질을 부담했으나 조건 없이 용퇴하고 특수목회를 하게 됐다. 현재 성도의 수는 많지 않고 4억여 원의 부채가 남아 있다고 한다. 담임목사의 취임식 분위기가 축하일색으로 밝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포인트는 잘 준비된 적임자가 취임하게 된 것으로 믿고 축하하며, 희생적인 전임자의 수고와 용퇴에 찬사를 보낸다.

### B교회 담임목사 취임식 축사

선교사를 지망하는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을 거쳐 대학원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학과시험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면접시험만 통과하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면접시험은 심사위원의 집에서 치르기로 하였고 새벽 5시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시험 보는 날은 눈이 내리고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라는 시간에 맞추어 심사위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3시간이 지난 8시가 돼서야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이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알파벳을 쓸 줄 아십니까?"

"예, 물론이지요."

"좋아요. 그러면 베이커를 써 보십시오."

"B-A-K-E-R입니다."

"훌륭해요. 그럼 숫자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예."

"그럼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심사위원은 면접시험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써서 선교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로서의 모든 자질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자제력과 정확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새벽 5시까지 저의 집에 오라고 했는데 그는 불평하지 않고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3시간동안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인가를 시험했는데, 시종 속상한 표시를 보이다거나 곧바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려고 일곱 살짜리 어린이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는데 그는 전혀 성질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생각되거나, 자기가 평가절하 된다고 생각될 때 발끈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때 자제력이 있어야하고 인내심이 있어야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그렇게 잘 안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자책하게 되는 것이지요.

목회자의 지도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술한 시행착오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P목사님이 B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 받아 취임하게 된 것은 그 훈련과정과 지도력이 하나님께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기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축하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K목사님의 용기 있는 퇴진에 축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생각하면 내어 놓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뒤로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와 함께 찬사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축하하는 것은 이런 훌륭한 목회자와 함께했고, 또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새 출발을 하는 B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큰 부흥을 조망하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신완식 목사의 축사·권면·격려사에 대한 단상

- 목회지도력의 특수성 -

## 7. 목사취임식 권면의 실제.

E목사는 40대 초반의 목사다 지금까지 부목사로 있다가 처음으로 담임목사가 되어 취임하게 되었다. 포인트는 목회리더십을 강조하여 권면했다.

### C교회 목사취임식 권면(목사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가축시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 한마디를 뺏고 지나갑니다. 『미련한 사람들. 타고 갈 것이지.』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얼른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한탄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애들은 경노사상이 없어서 큰일이야.』 이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을 내리게 하고 자기가 타고 갔습니다.

그들이 어느 마을 빨래터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낙네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 합니다. 『황성덕. 저기 좀 봐! 자식도 모르는 애비가 있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아들과 함께 둘이 타고 갔습니다.

E목사님! 이거 목사님도 아는 얘기지요? 여기까지만하겠습시다.

실은 이 우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나오는 아버지는 담임 목사이고 아들은 부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은 교회신자들입니다.

부목사 때는 담임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나귀를 끌고 가라면 끌고 가고. 타고가라면 타고가고.

그러나 담임목사는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야합니다. 이 아버지처럼 쫓대 없이 신자들의 말에 계속 휘둘리면 목회가 안 됩니다. 지도자가 남의 말을 무시한 채 너무 고집 불통이어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여론에 휘둘리고 남의 눈치를 보아서야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는 강의를 잘 못해도 학점가지고 학생들을 다룹니다. 사장은 회사원들을 돈으로 움직입니다. 정치인은 권력으로, 군인은 무력으로, 조폭두목은 주먹으로 자기의 조직을 움직이고 관리합니다. 그러나 목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목사가 탁월한 목회지도력을 가지려면 우선 성경적인 지도력을 잘 터득해야합니다. 성경에는 성공한 지도자와 실패한 지도자의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도력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담임목사에게는 전문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에 관한 전문서적을 읽고 연구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담임목사에게는 성도들이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E목사님은 성경적이고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춘 목사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으로 권면을 마칩니다.



## 신완식 목사의 축사·권면·격려사에 대한 단상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 8. 임직식권면의 실제.

D교회는 중소도시에 있는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다. 몇 사람 안 되는 작은 인원의 임직자를 세웠다. 하지만 온 교우들이 성심껏 임직식을 준비했다. 포인트는 다수의 임직자를 세우는 대형교회보다도 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보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교회 규모에 관계없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일꾼이 되도록 권면하였다.

### D교회 임직식 권면

독일의 시인 괴테의 작품 중에 『오랑캐꽃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 핀 한 떨기 조그만 오랑캐꽃이 양의 젖을 짜는 순진무구한 시골처녀의 발에 짓밟혀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랑캐꽃은 그것을 조금도 서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추잡하고 못된 사내 녀석의 손에 무참히 꺾이지 않고,

맑고 깨끗한 처녀에게 밟혔기 때문에 꽃으로 태어났던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원합니다.

보람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보람 있는 일생을 마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깨닫게 될 때 한없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사도요한의 직계 제자이고 서기156년경.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체포되어 순교한 분입니다.

그는 예수를 부인하기 만하면 살려주겠다는 총독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 말을 남기고 당당하게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 기독교신앙은 생명보다 귀한 절대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보람을 넘어서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명예장로로 추대되신 A장로님. 권사로 취임하신 M, S권사님. 그리고 안수 받으신 P집사님은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그 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람 있는 일인가를 알고 주님께 충성할 것을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기쁨과 예수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일하는 보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권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완식 목사의 축사·권면·격려사에 대한 단상

-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

## 9. 격려사의 실제.

E교회는 이미 개척한 작은 교회인데 대도시 모교회의 지원을 받아 건축을 하고 교회 명을 바꾸어 창립 및 입당예배를 드리게 된 교회다. 이 과정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채도 발생했다고 한다. 필자는 여기에서 목회자 탈진을 언급하고 성령의 지지를 받아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격려했다.

### E교회 창립 및 입당예배 격려사

슬럼프현상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슬럼프란 말은 주식 시세나 물가가 폭락하는 현상을 말하는 경제용어입니다. 1929년 뉴욕 월가(街)에서 주가가 크게 폭락하며 발단된 경제대공황을 일컬어 「1929년의 슬럼프」라고 했습니다.

또 운동선수의 경기력이 저하되거나 연예인의 인기가 떨어지는 현상에도 슬럼프란 말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인 슬럼프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채용전문기업 코리아리크루트가 직장인 8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슬럼프를 경험한 사람이 무려 99.4%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목회 사역에도 슬럼프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할 때는 돕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슬길라 부부가 헌신적으로 도왔고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하여 협력했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슬럼프에 빠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온갖 핍박을 견디어온 것에 비하면 고린도에서의 어려움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살 희망까지 포기해야 할 만큼 큰 핍박이 있었지만 이를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다.”하면서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과민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탈진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자코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이 격려사에 힘입어 바울은 일년 육개월을 고린도에 더 머무르면서 복음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년 육개월은 바울에게 있어 장기목회입니다.

오늘 E교회를 창립하고 새 성전을 건축하여 입당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바울을 위로했던 우리주님의 격려사가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건축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시작부터 힘든 일입니다. 건축 후에는 채무의 부담이 입당의 기쁨을 삼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개척교회를 섬기다보면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에 부딪쳐 창립의 감격은 사라지고 번 아웃 신드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밤에 환상 중에’란 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란 약속의 말씀도 잊지 마십시오. 담임목사님과 창립 멤버들은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는 선교비전을 갖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부디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격려사를 마치겠습니다.

## 신완식 목사의 축사·권면·격려사에 대한 단상

- 열심히 일하는 직분자가 되라. -

### 10. 임직식권면의 실제.

G교회는 면단위의 교회지만 안정적이고 역사가 있는 교회다. 장로 두 분과 권사 12분을 더 세우고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필자는 임직자와 교회에게 권면하는 순서를 맡게 되었다. 포인트는 파레토 법칙을 언급하고 G교회 신 구 임직자 모두가 충성할 것을 권면했다.

#### G교회 임직예배 권면

우리는 개미를 근면성실의 대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미집단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이런 상식과는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20%의 개미들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빈둥거리며 적당히 일을 하더랍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사회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는 옷 가운데 20%만 즐겨 입는 옷이고 나머지 80%는 잘 입지 않는 옷입니다. 20%의 범의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백화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어도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주고 나머지는 구경꾼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상위 20%의 부자가 나라전체의 부 80%를 점유하고 있는 불균형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정리하여 파레토라는 학자는 2080법칙이라는 경제이론을 주창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살펴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열심이 있었고 나머지 아홉 명은 적당히 일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이들은 모두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스테반과 빌립의 업적만 기록돼 있고 나머지 다섯 명은 어떻게

일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니콜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콜라당의 교주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더라도 모두가 올바르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일꾼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직분을 받은 신임 장로님 두 분과 12분의 권사님들.  
그리고 이미 세우심을 받은 G교회의 모든 직분 자들은 2080의 이론이 무색하도록 열심히 일하여 모두가 주님께 상 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권면을 마치겠습니다.

# 신완식 목사의 축사·권면·격려사에 대한 단상

- 목사의 지도력을 약화시키지 말라 -

## 11. 담임목사취임식 교회권면 실제

H교회는 한참 부흥하고 있는 중소도시의 교회다. 전임자가 대도시교회에 스카우트되어 떠나고 새 담임목사가 부임했다. 담임목회를 처음 하는 Y목사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규모의 교회다. 여기서 필자는 담임목사 취임식의 교회권면을 맡았다. 포인트는 하찮은 일로 목사의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것과 평신도 직분자들이 목사의 힘이 돼줄 것을 권면했다. 디자인은 두 개의 주제로 설계했다.

### H교회 담임목사 취임식의 권면(교회에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찬식에서 쓰고 남은 포도주를 서재에서 마셨습니다. 술의 속성을 모르고 한잔 두잔 마시다보니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서재 바닥에 드러누워 잠이 들었는데 속에서 불이 나니까 잠결에 옷을 모두 벗어 버렸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교회관리 집사님이 서재에 들어왔다가 이 민망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겠지만 그 시절에는 핸드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집사님은 장로님에게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모두 알려 바쳤습니다.

두 분 장로님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 사건을 당회에 부치거나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고 흠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잘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더 궁금하신 분은 창세기 9:20~27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든 것을 보고 비난하며 여론재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권위를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것을 결코 작은 일로 여기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하여 축복과 저주의 근거로 후세 사람들을 타이르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의 범죄를 덮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허물이나 실수를 확대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목회지도력을 약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H교회는 목사의 지도력을 잘 보호하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천하에 사도바울같이 위대한 인물에게도 심각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H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H교회에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스테바나와 브르나도 같은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뵈뵈 같은 집사님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바울이 말했듯이, 오늘 취임한 P목사님께도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으로 권면을 마치겠습니다.